

복싱선수의 심판판정인식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상태의 매개효과

송정명*(강남대학교 강사)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복싱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인식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와 이들 관계에서 심리상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한복싱협회에 등록된 복싱선수들에게 300부의 설문지이며, 이 가운데 250부를 회수하였다. 불성실한 자료와 무기입 자료 13부를 제외한 총 237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유효 표본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리상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 모형 4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복싱선수의 심판판정인식 중 공정성, 일관성은 중도탈락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싱선수의 심판판정인식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상태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심판판정인식, 중도탈락의도, 심리상태

* songjm3@naver.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에서 심판판정에 대한 공정성의 확보는 중요한 문제이다. 심판판정은 경기의 결과 뿐만 아니라, 경기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심판의 판정이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다면 경기와 선수, 더 나아가 스포츠경기 분야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김상겸, 문재태, 2014). 예를 들어 선수들의 심판 판정에 대한 불신은 선수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경기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김사엽, 김희중, 2000; 정현도, 2011). 심판의 판정은 심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주관적 판단의 작용은 공정한 판정을 저해할 수 있다.

심판이란 경기 진행 과정에서 선수들이 경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서명근, 2013). 그러나 심판의 오심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심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판정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심판 개인의 경기 운영 방식과 득점을 판단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최관용, 조민선, 2000). 특히, 기록을 측정하는 종목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구기 종목이나 투기 종목, 체조 등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최중삼, 최관용, 1999).

복싱경기는 사각의 링에서 상대방의 안면과 복부를 타격하여 득점을 올리거나 상대방을 KO 시켜 승패를 가르는 체급경기이다. 또한 규정된 규칙에 근거하여 체중이 유사한 선수들 간 공정한 실력을 겨루어 승패를 결정하는 무도 스포츠이다. 복싱은 두 명의 선수가 짧은 시간에 공격을 주고받으며, 연속적인 공격과 득점이 이루어지는 특징으로 인해 심판이 공정하고 신속한 판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과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임덕순, 이양주, 2021). 이로 인해 복싱과 같은 투기종목의 선수들은 잘못된 심판판정으로 인해 부정적인 심리상태

를 경험하고 운동에 대한 중도탈락의도를 보일 수 있다.

이규일, 허창혁, 류태호(2011)는 스포츠 선수 인구 감소 현상의 주된 원인을 선수들의 ‘중도탈락(drop out)’으로 보고 있다. 중도탈락이란, 선수가 참여해오던 운동 환경에 대해 더 이상의 참여를 포기한 상태이며 중도에 낙오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강신욱, 강미선, 1999). 학생선수들의 경우에는 중도탈락이 단순히 스포츠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적인 이탈 현상으로서 체육이나 엘리트 스포츠가 지향하던 교육적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임용석, 한만석, 김준성, 2014). 이에 체육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는 선수들의 중도탈락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임용석 등(2014)은 운동부 구성원들 간의 부정적인 관계(갈등, 다툼, 폭력 등)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도탈락 이후 이탈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심판의 판정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인식은 선수들의 심리상태 또한 부정적이게 될 수 있다. 심리상태는 선수 자신들이 경기에서 느끼는 집중력, 자신감, 정신력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 상태와 불안, 긴장감,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Smith, Schutz, Smoll, & Ptacek, 1995). 불안, 긴장 등과 같은 요인은 개인이나 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기상황의 사기와 경기결과에도 부정적이게 된다. 심판의 자질과 행동, 판정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때 정신력과 집중력 등과 같은 심리상태는 부정적이게 된다(박대성, 2007; 전원호, 김의영, 2015). 더불어 개인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중도탈락의도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박한샘, 2017 ; 남민우, 이해듬, 백은주, 2016), 즉, 복싱선수들의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과 심리상태의 관계에서 복싱선수의 심리상태는 매개변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복싱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 인식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와 이들 관계에서 심리상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복싱선수들의 지속적인 선수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선정된 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중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대한복싱협회에 등록된 복싱선수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 시 대상들에게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비밀 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300부의 설문지이며, 이 가운데 25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데이터 중 반응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구분	N	%
성별	남성	149	62.9
	여성	88	37.1
연령	20대	61	25.7
	30대	140	59.1
	40대	26	11.0
	50대 이상	10	4.2
학력	고졸이하	21	8.9
	전문대 졸업	48	20.3
	4년제 졸업	159	67.1
	대학원 이상	9	3.8
입상유무	없음	61	25.7
	있음	176	74.3
수련기간	3년 이하	125	52.7
	4-6년	63	26.6
	7-9년	15	6.3
	10년 이상	34	14.3
합계		237	100.0

고정화 현상이 있거나 불성실한 자료와 무기입 자료 13부를 제외한 총 237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첫째, 심판판정인식 척도는 박대성(2007), 오대중, 이양주(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심판판정인식 척도는 공정성 4문항, 신속성 4문항, 일관성 4문항, 신뢰성 4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심리상태 척도는 이진성(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상태 척도는 5문항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중도탈락의도 척도는 김지영(2008)이 개발한 척도를 기반으로 이유리(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중도탈락의도 척도는 8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입상유무, 수련기간 등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각 변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6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값은 .903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설명도는 67.389%로 나타났다. 이후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 한 결과도 모두 .753~.919의 값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2. 각 변인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중도탈락의도	심리상태	공정성	신뢰성	신속성	일관성	α
중도탈락의도5	.824	.100	-.030	.132	.128	.023	.919
중도탈락의도6	.818	.109	.119	.139	.061	.126	
중도탈락의도4	.808	.117	.213	.054	.106	.011	
중도탈락의도7	.799	.027	.153	.206	.151	-.017	
중도탈락의도2	.747	.147	.239	.028	.058	.164	
중도탈락의도8	.722	-.037	.157	.033	-.031	.291	
중도탈락의도3	.707	.128	.031	.173	.207	-.006	
중도탈락의도1	.700	.043	.123	.016	.139	.282	.872
심리상태2	.138	.830	.112	-.051	.146	.104	
심리상태4	.051	.828	-.052	-.028	.035	.208	
심리상태5	.003	.808	-.065	.045	-.016	.040	
심리상태1	.132	.777	.183	.033	.021	.080	
심리상태7	.136	.760	-.074	.130	.096	.013	.839
심판관정인식3	.190	-.002	.776	.306	.120	.139	
심판관정인식2	.217	.004	.774	.147	.045	.236	
심판관정인식4	.192	.019	.745	.256	.285	.079	
심판관정인식1	.137	.042	.641	.185	.187	.013	.837
심판관정인식15	.147	-.022	.171	.854	.082	.001	
심판관정인식13	.150	.108	.242	.667	.205	.206	
심판관정인식14	.161	.008	.333	.663	.223	.184	
심판관정인식16	.161	.062	.304	.642	.261	.285	
심판관정인식8	.126	.093	.058	.123	.803	.244	.846
심판관정인식5	.135	.045	.286	.268	.757	.194	
심판관정인식6	.272	.082	.245	.190	.718	.053	
심판관정인식7	.161	.059	.190	.374	.510	.377	
심판관정인식10	.157	.126	.112	.121	.061	.748	.753
심판관정인식9	.171	.133	.175	.317	.281	.672	
심판관정인식12	.200	.154	.059	.235	.369	.602	
심판관정인식11	.102	.272	.169	-.038	.323	.432	
eigenvalue	5.238	3.455	2.956	2.814	2.768	2.312	
% of Variance	18.062	11.915	10.193	9.704	9.545	7.971	
Cumulative %	18.062	29.977	40.170	49.874	59.418	67.389	
KMO=.903 Bartlett's $\chi^2=4010.259$, df=406($p<.001$)							

4.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237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방법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인들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심판판정인식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판판정인식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상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 모형 4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는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추정을 최대우도법으로 설정하여 단변량 정규성의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왜도는 -1.260 ~ .060

표 3. 정규성 검증 결과

	n	M	SD	왜도		첨도	
				M	SD	M	SD
공정성	237	4.392	.594	-.976	.158	1.328	.315
신속성	237	4.128	.752	-1.132	.158	2.051	.315
일관성	237	3.896	.753	-.578	.158	-.091	.315
신뢰성	237	4.195	.799	-1.260	.158	1.460	.315
심리상태	237	3.685	.661	.060	.158	-.597	.315
탈락의도	237	3.768	.683	-.555	.158	1.043	.315

값의 범위를 보이고 있고, 첨도는 $-0.597 \sim 2.051$ 값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West, Finch와 Curran(1995)가 제시한 왜도 ± 2 , 첨도 ± 4 의 기준을 충족하여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상관관계분석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p < .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각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8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	심리상태	탈락의도
공정성	1					
신속성	.533**	1				
일관성	.443**	.629**	1			
신뢰성	.616**	.599**	.511**	1		
심리상태	.200**	.293**	.376**	.243**	1	
탈락의도	-.433**	-.424**	-.423**	-.395**	-.370**	1

* $p < .05$, ** $p < .01$

3. 변인 간 인과관계

<표 5>는 심판판정인식, 심리상태, 중도탈락의도 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첫째, 심판판정인식이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분석결과 회귀식이 유의수준 .001($F = 10.062$)에서 심판판정인식이 심리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4.8%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IF:

표 5. 심판판정인식, 심리상태, 중도탈락의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계수 (β)	임계비율 (C.R.)	VIF
심리 상태	(상수)	2.222	.313		7.108***	
	공정성	-.002	.089	-.002	-.024	1.740
	신속성	.066	.077	.075	.863	2.081
	일관성	.271	.070	.309	3.856*	1.746
	신뢰성	.034	.071	.041	.479	1.982
F= 10.062***, Adjusted-R ² = .148						
중도 탈락 의도	(상수)	1.144	.299		3.822***	
	공정성	-.264	.085	-.229	-3.097**	1.740
	신속성	-.119	.074	-.131	-1.618	2.081
	일관성	-.184	.067	-.203	-2.732**	1.746
	신뢰성	-.062	.068	-.072	-.912	1.982
F= 21.353***, Adjusted-R ² = .269						
중도 탈락 의도	(상수)	2.360	.235		10.065***	
	심리상태	-.382	.063	-.370	-6.100***	1.000
F= 37.206***, Adjusted-R ² = .137						

* $p < .05$, ** $p < .01$, *** $p < .001$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관성($\beta = .309$)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판판정인식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분석결과 회귀식이 유의수준 .001($F = 21.353$)에서 심판판정인식이 중도탈락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6.9%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정성($\beta = .229$), 일관성($\beta = .203$)의 순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상태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분석결과 회귀식이 유의

수준 .001($F=37.206$)에서 심리상태가 중도탈락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3.7%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상태($\beta=.307$)는 중도탈락의도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심리상태의 매개효과

복싱선수들의 심판판정인식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상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심판판정인식은 심리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B=.384(p<.000)$, 심리상태는 중도탈락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228(p<.000)$, 심리상태는 심판판정인식과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판정인식과 중도탈락의도 간의 총 효과는 $B=.201(p<.000)$ 였으나, 매개변수인 심리상태가 투입되면서 심판판정인식에서 중도탈락의도 간의 경로의 직접효과가 $B=.501(p<.000)$ 로 증가하였고 심판판정인식에서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직접효

표 6. 심판판정인식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간접효과 검증

	coeff	se	t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인: 심리상태)						
constant	2.091	.286	7.299	.000	1.527	2.655
심판판정인식	.384	.068	5.620	.000	.249	.518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인: 중도탈락의도)						
constant	.850	.292	2.909	.004	.274	1.426
심판판정인식	.501	.067	7.477	.000	.369	.633
심리상태	.228	.060	3.787	.000	.109	.346

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심판판정인식과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표 7. 심판판정인식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상태의 매개효과 검증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Total effect	.588	.065	.461	.716
Direct effect	.501	.067	.369	.633
Indirect	.087	.032	.031	.158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복싱선수의 심판판정인식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상태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복싱선수의 심판판정인식 중 공정성, 일관성은 중도탈락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오대종과 이양주(2018), 김향훈 등(2017)은 심판판정인식은 선수의 운동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복싱선수의 심판판정인식은 선수들의 중도탈락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수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김희중(2000)은 심판의 부적절한 판정이나 오심 등과 같은 요소가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부당함이나 불이익을 경험하게 하고 결국 현재 참여하고 있는 종목으로부터 탈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스포츠경기에서 심판은 단지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

이 아닌 경기규칙을 기반으로 선수 모두의 경기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Weinberg & Richardson, 1995). 이에 따라 복싱 심판판정에 관한 질적 수준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심판교육 등과 처우개선 등 심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복싱선수의 심판판정인식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상태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전원호, 김의영(2015)는 선수들의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정청희와 홍길동(2002)은 선수들이 심판판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식할 때 심리적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 외 다양한 종목에서 심판판정 인식과 심리상태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박대성, 2007; 박천조 등, 2004; 조명준, 2009; 한기훈, 이진성, 2004).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복싱선수들은 심판판정인식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상태는 매개효과로써 의미있는 변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선수들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심판들의 공정하고 일관된 심판판정이 선행되어야 중도탈락에 대한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김원배와 성장훈(2000)은 심판의 판정이 공정하더라도, 선수들이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심판의 판정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판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때 감정조절이 어려워 부정적인 정서가 가중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성격에 대한 문제이며, 청소년 시절에 지도자와 주변인들이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복싱선수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바람직한 귀인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유지될수록 중도탈락의도가 낮아짐에 따라 따라서 정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복싱선수들의 자신감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심리기법들을 연구 및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복싱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인식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와 이들 관계에서 심리상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한복싱협회에 등록된 복싱선수들에게 300부의 설문지이며, 이 가운데 250부를 회수하였다. 불성실한 자료와 무기입 자료 13부를 제외한 총 237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유효 표본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리상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 모형 4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복싱선수의 심판판정인식 중 공정성, 일관성은 중도탈락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싱선수의 심판판정인식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상태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싱 심판판정에 관한 질적 수준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심판교육 등과 처우개선 등 심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싱선수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바람직한 귀인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선수들이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유지될수록 중도탈락의도가 낮아짐에 따라 따라서 정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복싱선수들의 자신감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심리기법들을 연구 및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한복싱협회에 등록된 복싱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연구의 결과를 전체 복싱선수들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 및 종목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심리상태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심리상태 이외 다양한 변인들이 심판판정인식과 중도탈락의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면 복싱 교육 및 경기현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신욱, 강미선(1999). 운동선수의 학업태만과 중도탈락에 관한 일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2(1), 57-70.
- 김사엽, 김희중(2000). 중·고등학교 하키 선수들의 심판 판정에 대한 의식 조사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9(3), 110-118.
- 김상겸, 문재태(2014). 헌법상 스포츠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 71-99.
- 김영갑, 최경훈. (2016). 학생선수의 열정과 운동정서 및 스포츠몰입의 관계. **코칭능력개발지**, 18(2), 77-84.
- 김지영(2008).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스트레스와 불안, 공격성 및 운동 중도탈락 의도와와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향훈, 이석준, 김지태, 심영균(2017). 고등학교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심판판정 결과인식과 운동지속성 및 경기력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2(3), 91-102.
- 김희중(2000). **하키 심판판정이 중·고등학교 선수들의 의식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남민우, 이해듬, 백은주(2016). 지방대학 신입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간 구조적 관계 분석.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5(4), 147-174.
- 박대성(2007). **경기태권도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선수들의 심리상태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박한샘(2017). 지방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C전 문대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5), 423-442.
- 서명근(2013). **유도심판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및 직무만족의 관계**. 미간행

-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오대중, 이양주(2018). 중·고등학교 검도선수들의 심판판정인식과 심리상태, 경기 스트레스 및 운동지속의도의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20(4), 103-117.
- 이규일, 허창혁, 류태호(2011). 중,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중도탈락 원인 특성 및 개선 방안. **체육과학연구**, 22(3), 2189-2202.
- 이유리(2012). **무용전공 대학생의 학업만족도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진성(2005).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판정 인식에 따른 심리상태 및 경기 영향도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덕순, 이양주(2021). 고등학교 복싱선수들의 심판판정인식과 긍정심리자본, 경쟁상태불안의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23(3), 53-66.
- 임용석, 한만석, 김준성(2014). 학생선수의 중도 탈락 경로 분석. **체육과학연구**, 25(3), 450-466.
- 전원호, 김의영(2015). 합기도에서 선수의 심판판정 인식이 심리상태와. **대한무도학회지**. 17(1), 13-29.
- 정청희, 홍길동(2002). 하키선수들의 심판판정 인식에 따른 심리상태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과학리뷰**, 23(1), 11-21.
- 정현도(2011). 대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판정 공정성에 관한 인식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6(3), 159-171.
- 최관용, 조민선(2000). 스포츠교육학 : 유도 심판의 「판정」 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9(4), 768-778.
- 최종삼, 최관용(1999). 체육측정평가 : 유도 판정 경기에 대한 심판과 선수의 견해 차이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8(1), 698-710.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 Smith, R. E., Schutz, R. W., Smoll, F. L., & Ptacek, J. T.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port-specific psychological skills: The athletic coping skills inventory-28.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7, 379-398.

- Weinberg, R. S., & Richardson, P. A. (1995). *Psychological of Officiating*. Leisure Press Champaign, Illinois.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State on the Influence of the Recognition of Judgement of Boxing Players on Intention to drop out of the box

Song, Jeong-Myeong(Kangnam Univ.)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judgment and intention to drop out of the boxing players in Korea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tate in these relationships. To conduct the study, 30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the boxers registered with the Korean Boxing Association, and 250 of them were collected. A total of 237 data were selected as the final valid samples, excluding 13 insincere data and 13 insincere data. The final valid sample was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Also,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tate, SPSS PROCESS macro model 4 of Hayes(2013) was used. First, fairness and consistency among the recognition of judgment of boxers had a negative effect on intention to drop out. Second, the psychological state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of the judgement of boxers and the intention to drop out of the box.

Key words: Recognition of Judgement, intention to drop out, Psychological State

논문투고일 : 2022.09.30.
심 사 일 : 2022.10.24.
심사완료일 : 2022.11.19.